

韓國 家口에 關한 一研究: 1960—1966

李 海 英

I. 家口統計의 主要 源泉

韓國에서는 徵兵, 課稅, 賦役의 目的으로 오랜 戶籍의 歷史를 지녀 왔다. 李朝에서 戶籍은 매우 効率的으로 利用되었고 全國의 家口와 人口數는 이러한 方法으로서 알 수 있었다. 李朝는 建國初期부터 三年마다 強制的으로 家口の 登籍을 行하였고, 이 登籍의 寫本은 漢城의 中央官廳과 各 地方官廳에 保存되었다.

이 戶籍臺帳에는 家口主의 住所, 職業, 姓名, 出生日字, 本貫, 四名의 直系先祖(父, 祖父, 曾祖父, 外祖父)의 이름과 妻의 未婚時 姓, 出生年度, 本貫, 四名의 直系先祖의 이름이 記錄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子女들의 出生年度, 사위의 이름과 本貫, 下人들과 家內雇傭人들의 出生年度가 記錄되어 있었다. 이 戶籍臺帳의 거의 大部分은 여전히 保存되고 있고 李朝의 人口와 階層研究의 重要한 資料로서 使用될 수 있다. 물론 이 統計資料 속에는 많은 問題點이 있고 이 問題點을 파헤치는 廣汎한 評價研究가 要請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資料가 注意를 기울여 使用되기만 한다면 李朝의 家口와 人口構成을 把握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戶籍 資料를 利用한 한 研究는 大邱地域에 있어서 16世紀 後半의 한 家口の 平均規模가 4.4名, 18世紀 初半에는 4.6名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1910年 日本에의 併呑이래 朝鮮總督府에서는 每年 年末 戶口調査를 實施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한 家口の 平均規模는 1910년의 4.8名에서 1940년에는 5.4名으로 增加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朝鮮總督部에서는 1920年 우리나라 最初의 센서스를 實施하려 했으나 1919年 3月 1日의 全國的인 三·一獨立運動으로 施行하지 못하고 1925년에야 施行하게 되었다. 以後 植民地時代의 終了까지 1925年, 1930年, 1935年, 1940年, 1944年 그리고 獨立後 1949年, 1955年, 1960年, 1966年, 1970年 5回의 센서스가 實施되었다. 그러나 1949年 센서스

* 本稿는 앞의 英文論文을 우리말로 要約번역한 것임.

資料自體는 韓國戰爭時 完全히 燒失당하고 겨우 그 速報만이 발간되었다. 1955年 센서스는 韓國戰爭의 無秩序한 餘波가 여전히 殘存하던 時期에 행해 졌으므로 따라서 研究와 計劃 目的에 使用되기에는 많은 問題點을 갖고 있었다. 質的으로나 量的으로나 共히 韓國의 센서스가 實質的으로 發展하기 시작한 것은 1966年에 이르러서였다.

II. 家口의 定義

1. 1925—1944年 센서스의 定義

1925年 以來 1944年까지 家口(世帶)는 ‘普通家口(世帶)’와 ‘準家口(世帶)’로 區分되어 그 定義에는 別로 變動이 없이 使用되어 왔다. 1925年 國勢調査의 定義에 따르면 “本令에서 家口(世帶)라 稱함은 住居와 家計를 같이 하는 者를 말함. 一人으로서 住居를 所有하고 家計를 營爲하는 者도 또한 家口(世帶)로 친다. 家計를 같이 하더라도 따로이 住居를 所有하는 者 또는 住居를 같이 하더라도 따로이 家計를 營爲하는 者는 한 家口(世帶)로 친다. 一人인 경우도 또한 같다. 寄宿舍, 病院, 旅館, 下宿, 其他 家計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集合하는 곳 또는 船舶에 타고 있는 사람으로 家計를 같이 하지 않는 者는 한 場所 한 船舶 마다 한 家口(世帶)에 準한다.”

2. 1960年 센서스의 定義

(A) 家口

1960年 센서스에 의하면, 家口는 1人(單身者) 또는 數人이 獨立的인 居住와 生計를 같이 하는 모임을 말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區分된다고 나타내고 있다.

- i) 個人家口
- ii) 集團家口
- iii) 營農家口
- iv) 非農家口

(B) 世代

個人家口에 있어 家口主와의 關係中 家口主와 그의 親戚과의 關係에 의한 直系 또는 傍系の 家口構成代數(行列數)이다.

3. 1966年 센서스 定義

家口라 함은 1人(單身者) 또는 數人이 居住와 生計를 같이 하는 獨立的인 모임을 말하며 이를 다음 2種으로 區分하였다.

1. 普通家口

家口主를 中心으로 겨레붙이가 한테 모여 살거나 또는 1家口를 形成하여 살고 있는 單身者家口를 말한다. 卽

- 1) 家口主와 그 家族만이 살고 있는 「집」
- 2) 家口主 및 그 家族과 그밖의 사람(下宿生, 同居人, 食母, 머슴, 店員 等)과 같이 살고 있는 「집」
- 3) 혼자 살림하는 單獨家口, 但 獨立된 부엌施設을 갖춘 살림 「집」

普通家口는 그 家口員의 家口主와의 關係에 따라 親族家口, 非親族家口, 單獨家口로 區分되고 親族家口는 家口主와 그 親族의 親族關係에 따라 一世代家口, 二世代家口, 三世代家口, 其他의 親族家口로 區分되고 있다.

2. 準家口

普通家口以外에 全然 血緣關係(겨레붙이)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있는 家口.

- 1) 一人準家口
- 2) 其他準家口

以上 세 센서스에서 使用되었던 家口의 概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25年 센서스以來 現在에 이르기까지 家口는 ‘住居와 家計를 같이하는 사람(들)’이라는 基本概念과 家口를 ‘普通家口’와 ‘準家口’(但, 1960년에는 個人家口와 集團家口)로 兩分하는 데는 變化가 없었지만 그 詳細한 分類에 있어서는 年代에 따라 얼마간에 差異가 있다. 특히 1960年과 1966年 센서스를 中心으로 그 主要한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個人家口에 혼자 사는 사람은 1960년까지는 普通家口로 計算되었으나 1966年 센서스에서는 이 單獨家口를 둘로 나누어 普通家口에 ‘居住를 같이하나 生計를 달리하는 사람’은 ‘一人準家口’로 計算해 準家口에 包含시켰다.
- 2) 1960年 센서스에는 個人家口에 同居하는 雇傭人 寄宿人은 그 數에 關係없이 그 居住하는 普通家口의 構成員으로 看做되었지만 1966年 센서스에서는 6人以上이 普通家口에 居住할 경우 그것은 其他 準家口로 計算되었다.
- 3) 1966年 센서스에서 처음으로 普通家口를 親族家口, 非親族家口 및 單獨家口로 區分해서 集計함으로써 家族構成員數를 어느 程度 握把할 수 있게 되었다.

Ⅲ. 家口의 規模

1945年 第二次 世界大戰의 終結과 더불어 38度線의 分斷, 韓國戰과 休戰으로 成立된 새로운 休戰線에 의한 分斷의 連續은 그 以後의 人口統計의 比較에 難點을 낳고 있는 實情

에 있다. 따라서 以下 韓國家口의 크기를 分析하는 데 있어서도 주로 1960年과 1966年의 센서스를 對象으로 그 期間사이의 變化에 焦點을 두기로 한다.

1960年과 1966年의 全國總家口數는 各各 4,378,000과 5,133,000으로 755,000家口가 增加하여 約 18%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同期間에 都市에 있어 準家口의 比率이 약간 增加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準家口가 全體家口中 차지하는 比率이 극히 적기 때문에 本研究에서는 보통 家口만을 중심으로 分析하기로 한다.

이 6年 사이에 가장 顯著한 變化의 하나는 營農家口와 非農家口의 比率이 54%對 46%에서 45%對 55%로 완전히 逆轉되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農村地域의 많은 營農家口가 非農家口로 轉換했다는 데서 起因한다. 이 根本 要因의 檢討에는 많은 注意가 필요하지만 同期間의 工業化政策의 進展, 韓國 센서스의 地域區分의 缺陷등을 假說로서 생각할 수 있겠다.

韓國家口의 平均 크기는 一貫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즉 不充分한 資料이기는 하지만 李朝時代의 戶籍分析을 통해 17世紀 前半期의 4.6人이, 1910年에 約 4.8人, 1925年에 5.25人, 1930年에는 5.26人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增加趨勢는 그 以後에도 계속되어 1960년에는 5.55人으로 1910年과 比較해볼때 約 1人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增加趨勢는 1966년에 이르러면 비로소 약간의 下落을 보여 5.49人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停止狀態의 主要原因는 말할 것도 없이 1960년부터 實施된 國家政策으로서의 強力한 家族計劃의 結果와 농촌의 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이주하여 작은 규모의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 추세는 1970年 센서스 結果의 發表에 따라 보다 明白해질 것이다.

家口規模를 다시 都市, 農村, 地域別로 살펴 보면, 1960年과 1966年 사이 都市의 경우 1人, 2人, 3人家口 특히 1人, 2人家口의 比率은 상당히 上昇했고 4,5,6人 家口의 比率은 現狀維持내지 약간의 上昇을, 7人 以上 家口는 下落을 나타내주고 있다. 反面, 農村家口는 이와 對照的으로 1人, 2人家口는 약간의 增加傾向을, 3,4,5人家口는 상당히 下落을, 6人에서 9人家口는 뚜렷한 上昇경향을, 10人이상 家口는 都市처럼 下落을 나타내고 있다.

都市家口規模가 이와 같이 줄어드는 현상은 보다 적은 家族規模로 志向하는 都市民의 價値體系의 變化와 젊은 層의 都市移住로 인한 結果인 것 같다.

IV. 家族의 크기와 構成

1960年 센서스 報告書에는 普通家口의 世代에 의한 家口數만이 製表되었으나 1966年 센서스 報告書에서는 普通家口中에서 따로이 親族家口를 分離해 製表가 이루어짐으로써 韓國에서 처음으로 센서스를 가지고 家族의 構成과 크기를 分析할 수 있게 되었다.

世代別 家口類型을 1960年과 1966年에 걸쳐 比較해 보면 2世代家族은 增加를, 3世代家族은 減少傾向을 엿볼 수 있다. 이 世代別 家族構成을 都市, 農村別로 다시 나누어 分析해 보면, 1960年과 1966年에 걸쳐 똑같이 全體家族中 都市에서는 2世代家族의 比率이 보다 높으며 農村에서는 3世代家族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다는 特徵이 나타나고 있다. 즉 都市에서는 夫婦와 그 子女로 構成되는 核家族이 支配的인데 反해 農村에서는 3世代家族이 아직도 30%前後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親族家口中 絶對多數를 차지하는 夫婦 및 子女로 構成된 2世代家口와 夫婦, 子女 및 그 兩親(片親)으로 構成된 3世代家口를 그 家口員數에 따라 分類해 보면, 夫婦 및 子女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全國이 평균 5人, 都市경우 역시 5人, 農村의 경우 5人과 6人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分布는 어느 地域을 莫論하고 대부분 3人에서 7人家口에 걸쳐 각각 10% 이상 20% 미만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過渡期的 段階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夫婦, 子女와 그 兩親으로 構成되는 3世代家口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형태는 全國, 都市, 農村別로 각각 그 평균치가 7人과 8人家口사이에 있으나 5人家口에서 9人家口사이에 그 대부분이 分布하고 있다.